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권두언



해양환경공단
한 기 준 이사장

존경하는 도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입니다.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인도하며 항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양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선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업계도 항만 물동량이 2019년 119억 4천만 톤에서 2020년에는 115억 1천만 톤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이 급감하며 해운산업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긴급경영자금, 선박금융 지원, 안정기금 추가 지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투입 등 선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올해는 호조를 띠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우려에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글로벌 물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운·항만업계 물동량이 지난해 4월 대비 7.4% 증가하며 해운산업이 호황을 맞는 등 우리나라라는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서 위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일선 현장에서 항만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도선사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선사 가족 여러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안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출범한** 이후,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지난 23년간 우리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방제,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 미세플라스틱, 해양 항만 대기질 개선, 해양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적기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안전을 수호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 업·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한국도선사협회와 인연을 맺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 및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내외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선원들을 대상으로 도선 시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교육·훈련 및 정기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대비 부주의 사고는 2016년 45.8%에서 2020년 31.9%로 감소했으며, 우리 공단과 협회의 꾸준한 예방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률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한국도선사협회와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선사 여러분!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바다가 곧 인류의 미래이자 인류 생존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하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무탄소 선박 정책과 수소 항만 구축,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해양쓰레기 저감**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한국도선사협회와 우리 공단도 해상 현장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누구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박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도선사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해양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